

# ‘Whatever’의 표현적 기능\*

서 경 희 \*\*

## 차 례

1. 들어가기
2. 자료 및 방법론
3. 문헌연구
4. 분석
5. 맺음말

## 1. 들어가기

본 논문에서는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수식어(non-modifier)로서의 *whatever*의 표현적 기능(expressive functions)을 분석한다. 다음은 일상 대화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whatever*의 한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1) (*Sex and the City*: season 3: episode 9: ‘Easy come easy go’)

(여자 주인공 4명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Miranda: You’ve just met. I’ve had pairs of pantyhose longer.

Charlotte: It’s not logical. This is love. It's not logical. It’s right in my heart. I feel it’s right.

Miranda: Ok, **whatever** (다소 통명스런 음성으로)

\* 본 논문은 200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주소: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전화: 02-2173-3234, 이메일: khshuh@hufs.ac.kr

(캐리(Carrie)와 샘(Sam)은 두 사람사이의 오고가는 대화에 다소 당황해하며 서로를 바라본다)

Sam: So, how did he look? (Carrie의 새로운 데이트상대에 대하여 화제를 돌리면서)

위의 발췌문 바로 전에 샬롯(Charlotte)은 트레이(Trey)가 자신에게 결혼 신청을 곧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발췌문 (1)은 미란다(Miranda)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니냐면서 우려를 표명하는 발화로 시작한다. 이에 대해 샬롯은 사랑에 관하여 자신이 평소에 믿고 있는 소신을 피력하고,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는 미란다는 논쟁을 중지하고자 *whatever*를 발화하고 대화를 종결짓는다. 여기에서 *whatever*는 “난 네 의견에는 동의 할 수 없지만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화참여자들 사이에서 자칫 불유쾌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화를 종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whatever*가 전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whatever*의 사전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anything)’이 전달하는 중립적인 의미 이외에도 다소 부정적인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에서 *whatever*는 수식어(modifier)로 쓰일 수도 있고 위에 소개된 바와 같이 담화표지(discourse marker) 혹은 집합표지 인식표(set-marking tags)(Dines 1980)의 일부로서 쓰일 수도 있다.

(2) Give me whatever peaches you don't want.

(3) I had to go to Kinko's **or whatever**.

(4) A: Will you do it tomorrow?

B: **Whatever**.

*Whatever*는 예문 (2)에서와 같이 수식어로 쓰였을 때는 ‘어떤 것이든(anything)’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문맥에 따라서는 화자의 무관심을

암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문 (2)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겠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복숭아라도 괜찮으니깐 주세요.(Give me any peaches you don't want.)”. 예문 (3)은 *whatever*가 집합표지 인식표의 일부로서 쓰인 경우인데 화자는 Kinko's(킹코 복사점)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다른 적절한 항목을 떠올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or whatever*는 일종의 대화채움어(conversation filler)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나아가 *whatever*의 사용은 화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혹은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나 열의가 결여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예문 (4)는 *whatever*가 다른 지시대상에 덧붙여서 나오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경우인데 주로 인접쌍의 두 번째 말차례(second-pair part)에서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쓰인다. 이 경우에도 역시 화자가 상대방의 발언/주장이나 혹은 상대방이 취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상대방이 취하려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낼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선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김으로써 책임을 지기를 원치 않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영어 및 문화사전』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에서는 *whatever*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그 밖에 무엇이든지’: “가방이나 상자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할 것이다.(Anyone seen carrying bags, boxes, or whatever, was stopped by the police.)”

둘째, (놀라움을 나타내며) ‘도대체’: “저 이상한 동물 좀 봐라!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Look at that strange animal! Whatever is it?)”

셋째, (상대방의 제안이나 요청에 대답할 때 종종 무관심을 보이면서)

A: “전화를 오늘밤에 드릴까요. 아님 내일 드릴까요?(Shall I call you tonight or tomorrow?)”

B: “아무때나 하세요.(Whatever)”

넷째, 부정문/의문문에서 명사/대명사의 뒤에 쓰여서 ‘하등의 .. 도 (at all)’의 의미로 쓰인다: “돈이라고는 전혀 없다.(I have no money whatever.)”

1) *Whatever*와 공기하는 여러 가지 언어표현 중에서 *or*가 압도적으로 자주 쓰임이 관찰되었다(이예지 2007).

본 연구에서는 *whatever*가 수식어로 쓰여서 문장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whatever*가 담화표지나 집합표지 인식표로서 쓰인 용례를 영어 구어 코퍼스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whatever*의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가 어떻게 화자의 태도(stance), 즉 ‘실행의지/관심의 결여’(lack of commitment)를 표현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상대방이나 상대방 의견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negative stance) 표시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whatever*의 기능을 각각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ction)과 대인적/상호작용적 기능(interpersonal/interactional function)으로 나누고(cf. Halliday 1985), 각각의 경우에 *whatever*는 어떤 구조적 특성을 지니는지, 공기하는 다른 언어표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whatever*의 의해 표현되는 화자의 태도 - 부정적 태도의 정도 - 를 나타내는 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2. 자료 및 방법론

본 논문은 구어 코퍼스분석에 의거한 논문으로서 그 주요 자료로서 두 가지 코퍼스를 사용하였다: 주로 Michigan Corpus of Academic Spoken English(MICASE)와 On line concordance에서 지원 가능한 US TV Talk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MICASE는 미시간 대학(앤아버 캠퍼스)에서 수집된 구어자료로서, 대학에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중심으로 녹음된 약 1백 7십만 정도의 단어수로(190시간) 구성된 방대한 자료이며 많은 수의 참석자와 다양한 개별 말 사례(speech-event) 종류를 망라하고 있다. 교실에서 녹음된 자료로는 대형강의, 소형강의, 소그룹 토론, 소그룹 실험실, 세미나, 학생들의 발표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교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녹음된 자료로는 상담 그룹, 개별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학술 구어(academic speech)를 문법, 어휘, 기능, 목적 등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데 유용하며, 서로 다른 전공들 간에, 혹은 서로 다른 수업들 간에 어떤 특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코퍼스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이 두 가지 주된 코퍼스 외에도 영어팝송에 나오는 가사나 미국 드라마에서 우연히 듣게 된 발화 또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3. 문헌연구

모호한 지시대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whatever* 또는 *or whatever*는 *and so on*, *and thing like that* 등과 더불어 지시대상 말미 부가어(referent-final tag)(Aijmer 1996) 혹은 집합표지 인식표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지시 대상물(referent) 바로 다음에 붙어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extension particles’ (Dubois 1993), ‘vague category identifiers’ (Channell 1994) 등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Or*나 *and*와 같은 접속사 없이 쓰이는 경우는 ‘축소된 부가어’(reduced tags)(Aijmer 1996: 212)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시 대상물 다음에 *or*나 *and* 없이 *something*이나 *whatever*가 바로 쓰인 경우이다(예: “thirty something”, “apples whatever”).

London-Lund 코퍼스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시대상 말미 부가어의 빈도수를 보고한 Aijmer(1996)에 의하면, *and*로 연결되는 부가어(총 41 가지) 중에서는 *and so on*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and things*, *and all the rest of it*, *and everything* 등의 순으로 빈도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or*로 연결되는 부가어(총 15 가지)의 경우에는 *or something*의 빈도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or so*, *or anything*, *or something like that*, 그리고 *or what*의 순으로 빈도수가 이어졌다.

이러한 지시대상 말미 부가어 혹은 집합표지 인식표는 주로 어떤 명제에 대한 화자의 불확실성을 표시하거나 제시된 정보가 근사치(approximization)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진다고 한다(Aijmer 1996: 213). 이러한 표지들은 명제의 진리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식적 기능(epistemic function)이나 감성적 기능(affective function)을 가진다는 점에서 화자의 태도표지(stance marker)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담화표지(discourse marker)로도 분석될 수 있

2) MICASE는 [www.las.umich.edu/eli/micase](http://www.las.umich.edu/eli/micas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을 것이다. 특히 집합표지 인식표는 범주를 일반화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특정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피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Dines 1980).<sup>3)</sup>

집합표지 인식표 등과 같은 소위 ‘모호한 표현들’(vague expressions) (Channell 1994)에 해당하는 표현들은 화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실제 언어로 표현된 것보다는 더 복잡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청자로 하여금 집합의 관련 멤버들을 (굳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떠올리도록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집합표지 인식표의 담화 기능은 부가어앞에 제시된 선행 요소를 좀 더 일반적인 사례/집합에 대한 하나의 예시/멤버라고 해석하도록 청자를 이끄는 절차적인 기능(procedural function)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Dines 1980). 이러한 부가어들의 사용은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지식(common ground)이 존재하리라는 화자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기지(known)의 자료에 의거하여 미지(unknown)의 사항을 청자가 추정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사용되는 것이다. 즉 부가어 앞에 주어진 예시항목에 의거하여 청자로 하여금 관련된 (미지의) 항목을 추론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대화참여자사이에 일종의 결속력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합표지 인식표와 같은 모호한 표현들은 화자가 적절한 표현이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채로 남아있기를 선호할 때도 사용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사회적 예법을 그르친다고 여겨질 때 정확한 문구를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기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Channell 1994: 162). 이러한 부가어의 사용은 주어진 상황에 필요한 만큼만의 정보를 제공할 때 적절하게 쓰인다는 점에서, Grice의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을 준수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도 있겠다(Channell 1994).

Or로 연결되는 or-tags의 기능에 대하여 Aijmer(1996)는 ‘근사치 표지(approximator)’의 기능과 ‘울타리 표지(tentativizing hedge)’으로 쓰인 경우를 지적하였다. ‘근사치 표지’의 기능은 부가어나 모호한 표현들이 지니는 공통

3) 이러한 집합표지 인식표나 담화표지의 또 다른 특징으로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또한 비격식체의 일상 대화에서 많이 관찰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적인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때 어림짐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화자 편에서 자신이 제시한 정보가 불확실하고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그 정보의 중요성을 격하시킬 때는 ‘울타리 표지’의 기능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는 그 정보가 해당 담화 상에서 청자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화자의 판단을 암시하기도 한다.

Bakht-Rofheart et al.(1999)은 *whatever*를 Schiffrin(1987)의 통합적 접근법(integrative approach)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담화표지로서의 *whatever*는 문자적 의미인 ‘어떤 것이든(anything)’에서 파생되었다고 보고 해당 발화에 대한 화자의 실행의지/관심의 결여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고 주장하였다. *Whatever*의 기능을 (i) 대화채움어와 (ii) 부정적 평가 표지(negative evaluation marker)라고 분류하고, 화자의 관심의 결여의 정도는 대화채움어로 사용될 경우는 비교적 약한 편이고 부정적 평가 표지로 쓰인 경우는 더 강하게 표현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암시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whatever*가 담화표지로 쓰일 때에는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옴으로써 수식어나 대명사로 쓰이는 *whatever*와는 구분이 됨을 지적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후속연구인 Benus et al.(2007)에서도 비수식어로 사용된 *whatever*가 세 가지 기능 즉 (i) 말채움어(filler), (ii) 중립적 표지(neutral marker), 그리고 (iii) 부정적 표지(negative marker)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류하고,<sup>4)</sup> 부정적 의미의 다양한 강도를 결정짓는 것이 운율(prosody)임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즉 부정적 의미는 *whatever*가 더 길게 발음될수록 또 더 강한 음조 진폭(pitch excursion)을 가질수록 또 *whatever*의 첫 두 음절사이에 분리된 억양을 가질수록 강해진다는 것이다.

Kleiner(1998)는 논쟁의 현장에 반대편이 존재하지 않는 의사논쟁(pseudo-argument)의 맥락에서 *whatever*가 부재한 반대편(absent

4) 다음은 각각의 기능에 대하여 제시된 예문들이다.

(1) I don't wanna waste my time buying a prom dress **or whatever**.

(2) A: Hey Ritchie, you want these over here?

B: Yeah, **whatever**, just put them down.

(3) So she ordered all this stuff and two days ago she changed her mind. I was like, **whatever**.

antagonist)의 입장을 제시할 때 쓰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whatever*가 하는 일은 *whatever* 바로 이전에 발화된 것이 화자의 입장이 아니며 화자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whatever*는 발화된 내용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발화되고 주장된 입장'(other-authored position)임을 표시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화자 자신이 동의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Kleiner(1998: 604)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Kleiner의 예문에서 발췌)

1. A: ..... And they kind of think- like they deserve it. -
2. Because- THEY grow up in the inner-city, and WE grew up
3. in West Bloomfield and Farming Hills
4. **or whatever.** So they-they deserve it. Cause our mommy
5. and daddies could afford it. And they don't know. And
6. I think that THEY generalize a lot too.

(5)는 대학캠퍼스의 인종차별에 대한 토론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대화참여자들 사이에 찬성편과 반대편으로 나뉘어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없다는 점에서 소위 논쟁담화와는 구분되는 의사논쟁이라고 정의된다(Kleiner 1998). 즉, 캠퍼스 내 인종차별과 같은 윤리성이 내재된 논의에는 오직 (의견의) 찬성자(protagonist)만 존재하고 반대편(antagonist)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논쟁담화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의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부재한 반대편의 입장이나 지지가 찬성자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제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발췌문 (5)에서는 참여자들이 흑인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 수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현 제도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흑인학생들은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장학금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장학금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후에 이어지는 발화이다. A는 1번 줄에서("and they kind of think-") 부재한 반대편의 입장을 제시하고 그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 발화



되고 주장된 입장’을 소개한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입장/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한 지지’(other-authored support)로 (“Because- THEY grow up...”) 이어지는데, 그 뒤에 바로 쓰인 *or whatever* 를 통해 A는 자신이 제시한 입장/지지의 타당성이나 가치에 대하여 화자 자신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표시한다. 즉 자신이 제시한 입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후행맥락에서는 그 입장을 반박하는 화자의 논의가 이어진다. 이와 같은 의사논쟁맥락에서 *whatever*는 그 앞에 제시된 논의를 ‘다른 사람에 의해 주장된(other-authored)’ 의견으로 간주하고 나아가 화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거나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Kleiner 1998: 604).

위와 같은 문헌연구와 코퍼스 분석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whatever*의 기능을 ‘화자의 실행의지/관심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즉 ‘화자의 실행의지/관심의 결여’는 때로는 ‘정확한 발화를 하고자하는 의지의 결여’(lack of commitment to a precise definition of meaning)나 혹은 ‘상대방이 제시한 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관심의 결여’(lack of commitment to any course of actions)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이는 화자의 무관심한 태도를 암시하기도 하고 때때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하며 상대방과의 논쟁 맥락에서 발화되는 *whatever*는 종종 현 대화상황이 해결될 수 없음을 나타내며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화자의 부정적 태도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whatever*는 때로는 한 주제를 마치고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기제로 쓰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맥락에 따라서 *whatever*는 화자의 무지나 무시에서부터 화자의 불관용 또는 회의적 태도까지 나타낼 때 쓰임으로써 화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입장에 이르는 다양한 범주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whatever*의 표현적 기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1) 기능과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텍스트적 기능과 대인적/상호작용적 기능으로 분석하고 (2) *whatever*에 의해 표현되는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의 강도가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 텍스트적 기능이란 (*or*) *whatever*가 앞서 나열된 지시대상 바로 뒤에 부가어로 쓰여서 텍스트 연결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대인적/상호작용적 기능이란 *whatever*가 어떤 지시대상에 불

어 나타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경우로서 주로 인접쌍의 두 번째 말차레에서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쓰인 경우를 지칭한다. *Whatever*에 의해 표현되는 화자의 태도는 텍스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화자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이 강했으나 대인적/상호작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화자의 부정적 태도가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성격상 운율이나 어조의 요소를 고려할 수 없었으나 화자의 부정적 태도는 *whatever* 발화시의 운율/강세/억양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cf. Bakht-Rofheart *et al.* 1999).

## 4. 분석

### 4.1 *Whatever* 1: 텍스트적 기능 (Textual Function)

*Whatever*가 앞서 나열된 지시대상 바로 뒤에서 부가어로서 쓰일 경우에는 텍스트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선행 텍스트와의 일관적인 관계(coherent relation)를 유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경우인데 지시대상 말미 부가어나 집합표지 인식표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겠다. 선행 지시대상 바로 다음에 연결어인 *or*가 쓰여서 *or whatever*의 형태가 주로 관찰되는데 때로는 연결어인 *or*가 생략된 형태인 소위 ‘축소된 부가어’인 *whatever*만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whatever* 1의 기능은 대화채움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로 화자의 정보탐색이나 인지과정에서 난관이 있음을 표시한다. 즉 화자가 무엇인가를 말해야 될 때, (i)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거나, (ii) 해당 문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iii) 자신의 발화에 대하여 확신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혹은 (iv)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아래의 예문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텍스트적 기능을 수행하는 *whatever* 1의 또 다른 구조적 특징은 화자 자신의 말차레에서 대화채움어로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 말차레(responsive turn)에서 상호작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whatever* 2와는 구분된다고 하겠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6) (MICASE)

S2:...you know and it's like an eighty-page thing and like ten of pages are color, [S1: yeah ] so that's i had to go t- for the ten pages of color i had to go to Kinko's **or whatever**. [S3: right ] she doesn't think it through but if i was like, explain\_ i just don't even want to hassle her about it

화자가 칼라 프린트를 하기 위하여 킹코나 또는 그에 준하는 복사점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킹코 이외의 다른 명칭이 떠오르지 않자 *or whatever*를 사용하고 있다. *Whatever*는 집합표지 인식표의 일부로서 *or whatever*의 형태로 자주 쓰이는데, Dines(1980)는 집합표지 인식표의 담화 기능에 대하여 “선행 요소를 좀 더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하나의 예시라고 해석하도록 청자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975: 22). 예문(6)에서 “킹코든지 아님 다른 데든지” 라고 발화함으로써, 화자는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을 표현하게 된다. 즉 집합원소 중 단 한 개만(위의 대화문에서 ‘킹코’)을 호명하고 다른 불특정한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함으로써 지시 대상 집합의 정확한 본질은 감춰진 채로 남아있게 된다. Dines(1980)는 영어에서 부분을 미지의 전체와 연결시키거나 혹은 모호한 아이디어 집단에 연결시키는 경우에도 집합표지 인식표가 사용됨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whatever*에 의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정확한 발화를 하고자하는 의지의 결여’라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whatever*가 가진 이러한 의미와 결합되어 집합표지 인식표는 종종 격하조의 뉘앙스를 담는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에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예문 (7) 또한 *whatever*가 대화채움어로서 쓰인 경우이다. *Or whatever* 로 대체되었던 미지의 부분을 화자가 후행맥락에서 직접 채워 넣고 있다.

## (7) (BNC 2)

think some feminists take that view, that they're not equal to a man unless they're earning money. But that staying at home and looking after

the children, **or whatever** and bringing up a family is just as valuable as a job, or a career.

예문 (7)에서 화자는 여자들이 직업을 갖고 돈을 벌지 않으면 남자들과 동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믿는 몇몇 페미니스트들의 견해에 반대하면서 집에서 (직업을 안 가진) 여자들이 하는 일들도 직업을 갖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임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화자는 자기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여자들이 집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staying at home”과 “looking after the children”을 열거한 후에 세 번째로 나열할 말이 떠오르지 않자 *or whatever*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자가 *or whatever*를 발화하고 난 후 다시 “bringing up a family”라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서 불완전했던 목록을 화자 스스로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whatever*가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사용되는 대화채움어로서의 기능을 했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집합표지 인식표로서 *whatever*의 이러한 특징은 다른 집합표지 인식표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합표지 인식표와 같은 모호한 표현들을 쓰는 이유는 굳이 상세한 정보를 덧붙이지 않고 모호한 채로 남아있어도 앞서 명명된 멤버들에 의거해서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사용된다(Jucker et al. 2003). 이는 대화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합에 속하는) 빠진 항목을 찾아내도록 이끌기도 하는데, 즉 대화상대방으로 하여금 빠진 항목을 찾아내고 이를 제공하도록 기대한다는 점에서 대화상대방에게 책임을 더 넘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whatever*의 경우 위의 예문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화상대방에게 목록을 완성해 주기를 기대하는 대신에 화자 자신이 빠진 항목을 채워넣고 있다. 또한 때로는 빠진 항목을 채우려는 시도 없이, 정보가 모호한 채로 남아있기를 선호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전체 담화의 흐름에는 별 영향이 없으리라는 화자의 판단을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겠다. 다음의 예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화자의 태도를 관찰 할 수 있다.

## (8) (MICASE)

S2: right. so we've got two points the sort of, international, um... [S3: politics] **or** [S3: or ] **whatever** i don't know how you say it unity of oppression [S3: mhm ] **whatever**, like the, connections [S3: mhm ] between oppression. um, and then the creating sort of African, links to sort of African history, and culture. [S3: mhm... ]

예문 (8)에서는 *whatever*가 두 번 쓰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집합표지 인식표로서 쓰이고 두 번째는 축소된 부가어로 쓰이고 있다. 화자 S2가 “international”이라고 발화한 후 대화채움어인 “um”을 발화함으로써 적절한 말을 찾고 있음을 보인다. 이에 대화상대방(S3)이 “politics”라고 발화하면서 화자 S2가 채우지 못한 항목을 완성해주고 있다. 그 다음 맥락에서 화자 S2는 *or whatever*를 발화함으로써 또 다른 불특정한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이어서 화자 S2는 “I don’t know”라고 말함으로써 두 번째 쓰인 *whatever* 발화 바로 전에 화자 자신이 제시한 정보(“unity of oppression”)에 대하여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쓰인 *whatever*는 화자가 자신이 제시한 정보에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고, 연어로 쓰인 담화표지인 *like* 또한 이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즉, *whatever*는 담화표지로서 화자가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지일 뿐만 아니라 화자가 자신의 발화내용에 확신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whatever*가 정보나 인지적인 층위에서 쓰임을 보여주는 예로서, 이러한 기능을 가진 *whatever*의 주위맥락을 살펴보면 머뭇거림을 보이는 휴지(pause)나, 다른 대화채움어 혹은 다른 집합표지 인식표들과 공기하는 현상이 종종 관찰된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whatever*가 다른 집합표지 인식표와 다른 점은 화자

5) 담화표지 *like*는 어떤 진술의 앞이나 뒤에 쓰이면서 그것이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지 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숫자 다음에 쓰이는 ‘근사치 표지(approximator)’로서의 기능과 기술다음에 쓰이는 ‘울타리 표지(hedge)’의 기능을 가진다. 즉 *like*는 화자가 청자에게 주는 정보처리지시(process instruction)로서 *like*와 함께 쓰인 명제들은 화자가 제시하고자 의도했던 생각과는 아주 유사하지 않고 단지 개략의 근사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표시한다(Jucker & Smith 1998).

가 관련된 항목을 나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표시하면서도 대화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항목을 제시하도록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해당 담화에서 모호하거나 혹은 미지인 채로 남아있는 것을 오히려 선호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문 (9)를 살펴보자.

## (9) (MICASE)

S5: but isn't lytic and lysogenic just whether, it dies or not? whether the cell's destroyed after

S1: right. because, in in one condition in one case like, the cell that's gets infected, will explode and like, **whatever**. right? but like, in another case it could be two or three cells that, after several replications that it does that.

S5: so what does that mean for the transposons?

(9)에서 “감염된 세포는 파열될 것이다”라는 발화 후에 집합표지 인식표인 *and like*가 쓰여서 자신이 제시한 정보와 근사치를 갖는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d like* 이후에 또 집합표지 인식표인 *whatever*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세포가 파열될 것이다”라는 명제 외에 어떤 다른 명제로 채워지더라도 화자가 크게 개의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빠진 항목을 청자로부터 기대하는 대신에 화자는 “right(맞죠)”하면서 청자로부터의 긍정적인 반응을 촉구한 후에<sup>6)</sup> “but”을 사용하여 관련된 다른 주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이전

6) 다음 예문에서도 지시대상 + *or whatever*의 구조를 갖는 발화문에서 청자(S1)는 상대방이 빠뜨린 항목을 제시하는 대신에 *or whatever*와 연결된 지시대상을 다시 한번 반복해줌으로써(“the Q-cycle”) 이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S2: and then i have a question

S3: A-N-P how do you spell that?

S1: A-N-A.

S2: and then the Q cycle, th- that's ubiquinol right? that's not for plants.

S1: what's not for plants?

S2: the Q cycle **or whatever**

S1: the Q cycle.

S2: you know the one where ubiquinol carries electrons

에 제시된 정보는 모호하게 놔 둔 채로 대화가 진행되어도 현 담화 상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다른 주제로 무리없이 넘어가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어떤 것을 취하든지 화자가 별로 개의치 않음을 나타내는 *whatever*의 의미는 다음 예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0) (MICASE)

S15: or, or you could say, or you could\_ but i mean at the same time you could say pornography's a type of erotica. [S1: okay ] i mean it's universal.

S1: yeah which is [S9: i don't i don't, ] the bigger one i don't know.

S9: well, i don't know i think like that there're, things about erotica like fall under the umbrella of pornography but i don't know if goes vice versa. **whatever**, same thing.

예문 (10)에서는 에로티카(성애를 다룬 예술)가 포르노그래피의 산하에 있다고 해야 되는지 혹은 반대로 포르노그래피가 에로티카의 산하에 있다고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다가 어떤 선택을 하여도 상관없다는 화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화자가 *whatever*를 발화한 직후에 “same thing”이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는 두 개념사이의 상하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결국 동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이 제시한 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관심의 결여’라는 화자의 태도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whatever*는 화자가 항목을 열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표시할 뿐 아니라, *whatever* 바로 앞에 열거한 내용에 대하여 화자의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을 살펴보자.

---

여기에서 *or whatever*의 쓰임은 Lighter(1998)가 지적한 바, ‘단정적인(peremptory) or what?’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Do you love it, or what?”라는 발화는 “of course you love it, and if you don't you'd better get ready to explain yourself”를 암시한다고 볼 때(Ligher, 1998: 120), “or what?”은 yes-no 질문의 형태로 쓰이긴 했으나 상대방이 완전히 동의하기를 기대하는 단호하고 절대적인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11) (MICASE)

S3: it's, yeah it's like um, this activator activates one thing for an operon like in in prokaryotes, [S4: mhm ] but i- or on on on one on one strand of D-N-A **or whatever** right? [S1: mhm ] [S4: right ] or or not one strand but one,

예문 (11)에서는 “one strand of DNA or whatever(한 줄의 DNA나 뭐 그런 거)”라고 발화한 뒤 바로 “맞죠?(right?)”하면서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는 청자에게 빠진 목록을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신호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정보 상태로 대화를 진행할 것임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바로 후행맥락에서 발화된 청자의 반응(“mhm”)은 말을 계속 진행하라는 신호(go-ahead signal)로 보인다. 여기서 일단 정보가 모호한 상태로 담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자신이 선행맥락에서 제시한 정보의 불확실성에 대해 여전히 정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대방(S4)으로부터 “right(맞아요)”라는 신호를 받은 이후에 화자 자신이 or 로 시작되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앞서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제시한 데 대한 일종의 수정(repair)행위로 볼 수 있다.

정보전달의 정확성이나 선택에 대하여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 화자의 태도는 예문 (12)에서와 같이 화자가 *whatever*를 발화한 이후 “I don't care”라는 발화를 덧붙임으로써 재차 강조되기도 한다.

## (12) (MICASE)

the UGLI? UGLI? is that UGLI or a coffee shop **whatever**. (xx) i don't care. (me neither) i mean what's close to where you guys are? this. ...

(12)에서는 어떤 장소를 기억해내려고 하면서 UGLI였는지 아니면 coffee shop였는지 확실치 않음을 *whatever*로서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발화되는 “I don't care”를 통해 그 장소를 정확히 기억해내는 일이 현 담화상황에서 화자에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청자 또한 “나



도 별 상관없어(me neither)”라고 응수함으로써 대화자 쌍방간에 합의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whatever*는 종종 화자가 전달하는 진술의 의미나 중요성을 축소시키거나 격하시키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Or whatever*와 같은 어구가 전달하는 의미는 “그 항목은 긴 리스트에 속해있는 하나의 구성요소일 뿐이며 이는 나머지 요소를 일일이 다 언급하려고 노력할 가치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Haiman, Suzuki로부터 재인용, 1998: 458).

*Whatever*는 인지적인 어려움에 기인하여 적절한 말을 바로 찾지 못했을 때 혹은 자신이 발화한 것에 대하여 확실성이 결여됨을 나타낼 때 쓰이는 외에도, 구체적 정보를 언명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whatever*는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화자의 정보전달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이외에도 화자의 감정전달의 측면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인 이유 혹은 상호작용적인 이유 때문에 구체적이고 특정한 정보를 언명하기를 피하려는 화자의 정의적 태도(affective stance)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문 (13)은 “Sex, Gender and Body lecture”의 한 부분으로서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이 플레이보이와 같은 잡지에 등장하는 여자모델들의 몸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13) (MICASE)

S5: a- are they less um, do they have less um, like fake breasts and stuff, do you know [S1: in Playboy? ] like than than in Playboy does Playboy have more have the [S1: (boy) ] because it, advertised [S1: (xx) ] more like the lifestyle versus like the actual explicit acts of, [S1: right ] you know submissiveness and, yadda yadda.

S1: you know that i don't know <LAUGH> um, [S5: i dunno. i've, never looked at it. ] right, no th- <SS: LAUGH>[S3: we actually bought one ] no i [SU-f: mhm ] assume, some women in Playboy probably

have had, <END BACKGROUND NOISE> artificial, **whatever** um i-  
as much as, women in Hustler or whatever, um i don't know if there  
have been any studies on that, actually. but you can check yes  
Rachel.

본 대화의 주제는 성형수술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소 민감한 성격을 갖는다. 이는 화자들이 '성형수술한 가슴'(fake breast)을 언급할 때 울타리 표현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S5는 성형수술한 가슴을 언급하면서 *like*와 같은 울타리표현이나 *and stuff* 과 같은 집합표지 인식표를 같이 쓰고 있다 (*like fake breast and stuff*). 또한 S5의 말차례 마지막 부분에 발화된 "yadda yadda"를 통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하기를 회피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S1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whatever*를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fake breast and stuff(성형수술한 가슴이나 뭐 그런 거)' 라는 주제와 연관지어 "artificial(인위적인)"이라고 기술한 뒤 '가슴'이나 혹은 다른 신체 부위를 상세하게 명명하는 대신 모호한 표현인 *whatever*를 사용한 것은 화자의 회피전략(avoidance strategy)으로 보여진다. 이는 아마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즉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피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whatever*를 사용한 것은, 화자가 심리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논의에서 보여 주듯이 회피전략이 함축하는 전형적인 의미는 *whatever*의 의미적 자질에 기인하기 보다는 *whatever*가 쓰이는 문맥에서 조성된다. 회피의 원인이 사회적 요인에 있는지 인지적인 제약 때문인지 혹은 다른 요인에 기인하는 지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Enfield 2003: 11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자는 *or whatever*나 *and stuff, something like that*과 같은 집합표지 인식표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표현된 내용보다는 더 복잡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청자로 하여금 집합에 속할 수 있는 관련 멤버를 떠올리도록 한다(Jucker et all 2003). 이처럼 '모호한 카테고리

리'를 지칭하는 표현들은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인 모호함을 나타내려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담화맥락에서 정확하게 구체화될 필요는 없다(Channel 1994). (Or) *whatever*가 다른 집합표지와 구분되는 점은, 상대방이 어떤 대상을 떠올릴지라도 자신은 그에 대해 별로 개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태도를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면에서 (or) *whatever*는 화자가 보이는 '관심의 결여'가 좀 더 강조되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것이라도 크게 개의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소위 단념하는 듯한 태도(abandoning stance)로 인하여 대화상대방 또한 관련된 항목을 찾아내어 굳이 제공하려는 의지를 덜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 4.2. Whatever 2: 대인적/상호작용적 기능 (Interpersonal/ Interactional Function)

지시대상에 부착되어 부가어로서 사용되는 *whatever* 1과는 달리 *whatever* 2는 단독으로 사용되는데 주로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 말차레에서 관찰된다. 이러한 *whatever* 2는 상대방의 발화나 상대방이 제시한 제안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시하거나 혹은 의견이 다름을 표시할 때 종종 사용된다. 따라서 대인적 기능/상호작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whatever* 2는 화자의 수동적인 수락이나 암묵적 인정 나아가서 무관심/무시와도 같은 회의적인 태도 및 부정적 태도를 표현하기도 한다. Kleiner(1998)는 이러한 *whatever*의 기능에 대하여 '해결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지(marker of unresolvability)'라고 정의하였는데 대화상대방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 논쟁을 잠시 보류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즉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 논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제인 것이다(Kleiner 1998: 610).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종종 관찰되는 *whatever*의 기능 중의 하나는 현 담화상황에서 대화상대방사이에 의견의 일치나 갈등의 해소가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될 때 진행되고 있는 화제를 종료하고 다른 화제로 전환할 때 쓰이는 것이다. 이러한 *whatever*의 기능들은 대화에서의 대인적 혹은 상호작용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whatever* 2가 최근 *wew*로 발음되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자우

편이나 SMS에서 흔히 쓰이고 있고 소위 valley girl talk의 특징이기도 하다.<sup>7)</sup>  
예문 (14)는 *whatever*가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쓰인 경우이다.

(14) (MICASE)

SU-f: i think that there might have been more than three though.

SU-f: i say five.

SU-m: i say four.

SU-f: okay. **whatever.**

SU-f: four to five.

예문 (14)에서는 Su-f의 “five”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four”라고 주장하자 SU-f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라고 태도로 “Okay, whatever”라고 발화한 후 “four to five(넷에서 다섯사이)”라고 덧붙이면서 어떤 특정한 선택을 하는 대신에 모호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의견의 차이점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음 예문 또한 *whatever*가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쓰인 경우로서, 상대방의 제시한 제안에 대하여 선택권이나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취하려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whatever*는 “as you wish”, “if you say so”, “have it your own way”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15) (US TV Talk)

PHIL [sighs] Yeah, all right.

RICKY Cheers, Phil. All right, well, I'll have to start on it at lunchtime.

PHIL Yeah, **whatever.**

---

7) Valley Girl Talk 혹은 Valspeak는 1995년 영화인 Clueless 와 Waynes' World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valspeak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표현들로는 “(so) totally”, “like”, “WHAT-ever”, “duh”, “Worst (something) ever” 등이 있다.  
(<http://en.wikipedia.org>)

“점심때에 그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리키(Ricky)의 발화에 필(Phil)은 일단 “Yeah” 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인 후 연이어 *whatever*를 발화하여 “니 알아서 해”라고 상대방에게 행동선택권을 넘기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첫 줄에서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응락하고 있는 필(Phil)의 발화 또한 필(Phil)의 이러한 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래의 예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6) (US TV Talk)

KRAMER Nuh! Okay Jerry, how about if Mike fixes your truunk, we call it even, an’ this way, nobody has to get hurt.

JERRY [*whatever*] Fine..

MIKE Oh--uh--thank you, Jerry, thank you!

(16)에서는 크레이머(Kramer)가 제리(Jerry)와 마이크(Mike)와의 관계회복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리(Jerry)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리(Jerry)는 *whatever*라고 반응한 후 “fine”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대화의 흐름상 제리(Jerry)편에서 약간의 회의를 품고서 상대방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나한테는 별 차이가 없지만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하라지”라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비춰진다. “fine”의 사용 또한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치자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sup>8)</sup>

예문 (14)에서 (16)까지는 *whatever*가 상대방의 발화나 제안들에 대한 반응으로 쓰인 경우인데 이와 같이 인접쌍의 두 번째 말차레에서 쓰였을 때 *whatever*는 종종 화자의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상대방이나 상대방 발화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암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whatever*가 상호작용/대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8) 논쟁맥락에서 fine은 어조에 따라서는 논쟁을 마치고 싶을 때 사용될 수 있는데 즉 “내말이 맞고 네가 틀리므로 네가 그만 입을 다무는 게 좋을 걸”이라는 암시를 주기도 한다.

(17) (MICASE)

S3: um i didn't have a lot of questions on the ex- uh the practice exam except for the short answer.

S4: mhm

S1: okay, how 'bout you two?

S4: i just have questions from lecture notes.

S1: and

S5: just, **whatever**, [S1: whatever] i don't really care <SS: LAUGH> i'll ask questions later

(17)에서는 S5는 *whatever*라고 발화함으로써 질문 할 것이 별로 없고 질문에도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whatever*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I don't really care”와 “I will ask questions later”라는 발화는 화자의 그러한 태도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코퍼스 전체를 통해 *whatever* 다음에 이처럼 화자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I don't care”와 같은 표현이 종종 쓰임이 관찰되었다. 또한 이 대화문에서 주목할 것은 S5의 *whatever*와 학생들에게 시험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지를 물어봤던 S1의 *whatever*가 겹쳐서 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겹쳐서 발화되는 *whatever*를 통해 화자와 청자가 서로 현 주제에 관심이 적음을 보임으로써 상호간에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 성취되어 현 주제가 협조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때때로 이와 같은 화자의 무관심한 태도는 청자에 의해 후행 맥락에서 명시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18) (US TV talk)

CINDY: Your concern is overwhelming, Ian. What you gonna wear?

IAN: [dread/dismissive] Yeah--I don't know--**whatever**.

CINDY: Ian, we're supposed to be makin' an effort!

무슨 옷을 입을 것이냐는 썬디(Cindy)의 질문에 이언(Ian)은 “모르겠어. 아무거나 걸치지 뭐” 라고 거부하는 듯한 태도로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이자 후행 맥락에서 썬디가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냐” 하면서 이언의 무관심에 대해 질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hatever*의 사용은 대화상대방사이의 의견의 일치나 갈등의 해소가 별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즉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논쟁에서 손을 떼도록 해준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러한 기능에 대하여 Kleiner(1998)는 *whatever*가 ‘해결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whatever*는 서로 간에 입장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서로 반박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agree to disagree)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이 관찰된다.

화자는 어떤 선택이라도 상관없다는 무관심한 태도에서 나아가 상대방의 의견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whatever*의 사용은 상호작용맥락에서 종종 논쟁을 마감하고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예문 (19)를 살펴보자. 이 대화 이전 맥락에서 리차드(Richard)는 샘(Sam) 몰래 바람을 피우고 난 후 샘이 이를 알게 되었고, 샘이 화를 내면서 관계를 정리하려하자 리차드는 “겁났어(I got scared.)”라고 말하면서 샘에게 사죄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란다(Miranda)는 이 말이 리차드의 진심이라기 보다는 일단 샘을 위로하려고 한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9) (*Sex and the City*: Season 5, episode 2: ‘Unoriginal Sin’)

Richard: Just for the record, I did got scared.

Miranda: Ok, **WHAT-ever**. Thanks for coming

(리차드는 샘과 함께 세례식 자리를 떠난다)

Miranda (to Carrie and Charlotte): He is such a player.

Charlotte: I don’t know. Maybe things will work out between them.

(미란다는 여전히 리차드를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캐리를 쳐다봄)

이 대화는 리차드가 미란다의 아기의 세례식에 참가했다가 미란다를 만나게

된 자리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위의 예문에서 미란다는 *whatever*를 발화함으로써 논쟁을 종식시키고 있다. 이어지는 발화인 “와주어서 고맙다(thank you for coming)” 또한 앞으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리차드와의 작별인사로서 대화를 마감하려는 미란단의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별인사 이후 샘이 리차드를 대동하고 떠나는 행위를 보더라도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도 이에 대해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whatever*의 사용은 “사실이 어떻든지 상관 안 해”라는 무관심의 태도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발화에 부정적인 화자의 입장(“I don't believe you.”와 같은 태도)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전 문맥에서도 미란다는 리차드가 한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고 위의 발췌문에서도 리차드가 떠난 후에 미란다는 “그 남자는 못 말리는 바람둥이다(he is such a player)”라고 덧붙임으로써 참회하려고 했다는 리차드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리차드의 말을 그대로 믿고 리차드와 샘의 관계가 아마도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살롯의 발화에 대해서도 역시 미란다는 신뢰하지 않는 표정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whatever*는 단지 상관없다는 무관심의 태도를 넘어서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맥락에서 *whatever*의 사용은 일단 리차드와의 (불필요하고 불유쾌할 수도 있는)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며 결국 미란다는 자신이 리차드의 이야기를 믿고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whatever*의 사용은 종종 주제를 전환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앞 서 소개한 예문 (1)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20) (*Sex and the City*: season 3: episode 9: ‘Easy come easy go’)

(여자 주인공 4명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Miranda: You’ve just met. I’ve had pairs of pantyhose longer.

Charlotte: It’s not logical. This is love. It’s not logical. It’s right in my heart. I feel it's right.



Miranda: Ok, **WHAT-ever** (다소 투명스런 음성으로)

캐리와 샘은 두 사람사이의 오고가는 대화에 다소 당황해하며 서로를 바라본다)

Sam: So, how did he look? (캐리의 새로운 데이트 상대에 대하여 화제를 돌리면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녀관계에 대하여 미란다와 살롯은 서로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논쟁에 가까운 대화를 하다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란다는 “Ok, whatever”로서 대화를 종결짓고 있다. 여기서 *whatever*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이는 표지로서 화자가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나타내면서 결국은 대화상대방 쌍방이 서로 견해를 좁히지 못할 것 같음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즉 *whatever*는 자칫 불유쾌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화를 종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데 전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Whatever*를 발화할 때의 미란다의 어조 및 얼굴표정이나, 담화현장에 있는 다른 대화참여자들인 캐리와 샘의 (당황스럽다는 듯이 눈을 굴리는) 표정을 통해서도 선행 대화의 불유쾌한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 대화를 살펴보면 두 사람사이의 대화를 듣고 있던 샘은 캐리의 새로운 데이트 상대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주제를 바꾸고 있는데, 이와 같이 주제 전환과 같은 상호작용적 움직임(interactional move) 또한 대화참여자들에 의하여 상호간에 승인됨으로써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샘은 Kleiner(1998: 611)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좀 덜 거친 물결을 따라 움직이려고(moving into less turbulent water)”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로 사용된 코퍼스 데이터는 그 성격상 주로 대학에서 수집된 학술담화이기 때문에 화자간의 의견의 불일치를 나타낼 때 쓰이는 *whatever*는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러한 *whatever*의 사용은 일상대화에서 특히 인접쌍의 두 번째 말차례에서 빈번히 관찰되기 때문이다. 『섹스와 시티』(*Sex and the City*)의 대화에 잘 나타나고 있듯이, 특히 여성들 사이의 대화에서 그러한 기능의 *whatever*가 많이 관찰되는 것 같다.<sup>9)</sup>

다음은 MICASE에서의 발췌문으로서 “plasmids are just circular D-N-A”라는 진술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오가다가 S1이 어땠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I don't know whatever”라고 발화한 후, “okay so you have this thing right?”라고 하면서 다음 주제로 전환하고 있다. 여기에서 앞 선 대화를 종료하고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whatever*가 다른 담화표지인 *okay*와 더불어 쓰이고 있는 점을 주목할 수 있겠다.

(21) (MICASE)

S1: yeah. like what she was saying was okay. well let's use this example again.

S5: cuz plasmids are just circular D-N-A. [S1: yeah ] only in bacteria, right? yeah.

S4: i think so

S3: i think so

S1: (xx) i don't know **whatever**. okay so you have this thing right? you have this, plasmid, okay? okay. and then you have this plasmid. right? so like step one was to get this this recombinant plasmid. right? and this recombinant plasmid, inserts into the lac- whate- [S4: Z,-gene ] what was it? lacZ gene? that um, [S4: normally makes the ]

S5: it like knocks out

이상으로 *whatever* 2의 상호작용적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Whatever* 2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논쟁을 잠시 접는 기제로서 종종 주제 전환시에 효과적으로 사용됨이 관찰되었다. Willard(1989: 85)가 지적하였듯이 논쟁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있다는 증후 중의 하나는, 논쟁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논쟁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whatever* 2가 논쟁을 종식하는 데에 효과적

9) Micase 코퍼스의 분석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이 *whatever*를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예지 2007).

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맺음말

코퍼스 자료와 미국드라마 대화자료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whatever*의 표현적 기능을 텍스트적 기능과 대인적/상호작용적 기능으로 살펴보았다. 화자의 '실행의지/관심 결여'라는 의미를 가진 *whatever*는 '정확한 발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여'나 혹은 '상대방이 제시한 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관심의 결여'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어떤 선택도 상관없다는 수동적인 수락이나 목인을 표시할 경우도 있고 또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려는 화자의 태도를 표시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상대방이나 상대방의견에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whatever*는 때로 한 주제를 종식시키거나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기제로 쓰이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whatever*에 의해 표현되는 화자의 태도는 세 가지 층위- 인지/정보적 층위, 담화구조적 층위, 그리고 상호작용적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겠다. 이 층위에 따라서 화자의 부정적 태도의 강도가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

### 1. 인지/정보적 층위(Cognition)

*whatever*가 인지적 과정을 나타내는 표지로 쓰일 때:

대화채움어로서의 기능

### 2. 담화구조적 층위(Organization)

*whatever*가 화제 전환을 나타내는 표지로 쓰일 때

### 3. 상호작용적 층위(Interaction)

*whatever*가 대화상대방과의 불협화음을 단절시키려는 표지로 쓰일 때

*Whatever*가 적절한 표현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거나 혹은 불확실한 정보를 표시할 때는 인지/정보적 층위에서 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화자의 태도는 주로 중립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whatever*가 화제 전환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예문 (21)처럼 인지/정보적 층위와 담화구조적 층위에서 더불어 쓰인 경우도 있었고 또는 예문 (19)와 (20)에서와 같이 담화구조적 층위와 상호작용적 층위가 연결되어 상대방과의 논쟁을 종식하고 새로운 화제로 전환할 때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 *Whatever*가 상호작용적 층위에서 쓰였을 때 화자의 부정적 태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whatever*가 상호작용적 층위에서 쓰이면서 대인적/상호작용적 기능을 수행할 때는 종종 *wev*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Whatever*가 *wev*로 축약되어 발음되는 현상이 문법화현상인지 혹은 SMS에서 즐겨 쓰는 축약형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wev*로 축약하여 발음하는 현상은 ‘Valspeak’의 하나의 특질로서 ‘Valspeak’는 원래 남부 캘리포니아의 ‘valley girl’들이 쓰는 언어를 일컫는 사회적 방언(sociolect)이라고 할 수 있다. ‘Valspeak’는 1970년대에 시작되어서 1980년대에 절정에 이르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영어가 쓰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주로 젊은 영어화자층들의(특히 여자) 발화에서 많이 발견되는 언어 현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http://en.wikipedia.org>).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단독으로 쓰여서 상호작용적 기능을 하는 *whatever*만이 *wev*로 축약되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또한 남녀차이에 따른 *whatever*의 사용현상은 본 논문에서는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Valspeak’ 현상과 더불어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인용문헌

- 이예진. "Whatever as a Discourse Marker in Spoken American English." 「화용론과 영어교육 기말프로젝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 Aijmer, K. *English Discourse Particles: Evidence from a Corpu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2002.
- Benus, S., A. Gravano, and J. Hirschberg. "Prosody, Emotions and 'whatever'." *Proceedings of Interspeech*, Bonn: ISCA. 2007. 2629-2632.
- Blake, R., M. Bakht-Rofheart, S. Benus, S. Cooper, M. Josey and E. Solyom "I Have Three Words for You: Whatever as a Discourse Marker," Paper presented at NWAV XXVIII, Toronto. 1999.
- Channell, J. *Vague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4.
- Debois, S. "Extention Particles, etc."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993. 179-203.
-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Longman. 1992.
- Dine, E. "Variation in Discourse—and Stuff Like That." *Language in Society* 9 (1980): 13-31.
- Enfield, N. J. "The Definition of WHAT-d'you-call-it: Semantics and Pragmatics of Recognitional Deixis." *Journal of Pragmatic* 35 (2003): 101-117.
- Haiman, John. "Repetition and Identity." *Lingua* 100: 1 (February 1997): 57-70.
- Halliday, M. A. K.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1985.
- Jucker, A. H. & S. W. Smith. "And People Just Know Like 'Wow': Discourse Markers as Negotiating Strategy." *Discourse Markers: Descriptions and Theory*. Ed. A. H. Jucker & Y. Ziv. John Benjamins: Amsterdam. 1998. 171-201.

- Jucker, A. H., S. W. Smith & T. Lodge. "Interactive Aspects of Vagueness in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35, 2003. 1737-1769.
- Kleiner, B. "Whatever—Its use in 'Pseudo—argument.'" *Journal of Pragmatics* 30 (1998): 589-613.
- Lighter, J. E. "Word Improvisation, Say What?," *The Atlantic Monthly*. 20 (October 1998): 120.
- Schiffrin, D.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Suzuki, S. "Tte and Nante: Markers of Psychological Distance in Japanese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29 (1998): 429-462.
- Willard, C. A. *A Theory of Argumentation*. Tuscaloosa, AL: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9.

인터넷 사이트

<http://www.las.umich.edu/eli/micase>

[http://www/lexutor.ca/concordancers/concord\\_e.html](http://www/lexutor.ca/concordancers/concord_e.html)

<http://en.wikipedia.org>

Abstract

## The Expressive Functions of *Whatever*

Kyung-Hee Suh (HUFFS)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corpus-based investigation of *whatever*, focusing on its expressive functions in spoken English. An examination of tokens from the Michigan Corpus and US TV Talk reveals that *whatever* as a non-modifier marks the speaker's epistemic and affective stance. As a stance marker, *whatever* is used when the speaker expresses his/her lack of commitment to precise definition of meaning or to any particular option/set of options. As such, *whatever* is used as a conversation filler, filling in a necessary interactional space when the speaker encounters trouble in producing the next item due. *Whatever* also marks a lack of certainty by the speaker. The speaker also uses *whatever* to avoid explicitly labelling what s/he has in mind, presumably because this may be impolite or inappropriate to the situation. In these cases, *whatever* appears as a tag attached to the referent(s), i.e., as a set-marking tag carrying a textual function.

Stand-alone *whatever*, which is more common in everyday conversation, carries an interactional/interpersonal function; *whatever* as part of a responsive turn usually suggests the speaker's reluctance to engage or argue, expressing the speaker's impatience or scepticism; it often serves to suspend argumentation when resolution or agreement seems unlikely, carrying the negative tone by the speaker. *Whatever*, in such a context, allows the interaction to move on and move into less turbulent waters, which often in turn leads to a topic shift.

**Key words:** Speaker stance, Conversational filler, Set-marking Tags, Textual function, Interactional function.

화자태도, 대화 채움어, 집합표지 인식표, 텍스트 구성기능, 상호작용적 기능

논문접수일: 2008. 4. 23

심사완료일: 2008. 5. 21

게재확정일: 2008. 5. 30